모두에게 공평한 인생의 기본세팅

(열왕기하 12:4~21)

4.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6. 요아스 왕 제이십삼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7.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8.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오늘 말씀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인생의 기본세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인생의 기본세팅'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도 지구상 곳곳에서 공평의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공의와 평등의 문제, 다른 말로는 정의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로도 해결이 안 되고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유럽 같은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북유럽에서의 부자들은 무려 수익의 45%까지를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와 지연과 학연에 의한 파벌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집권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누어지고, 야당도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친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제부분의 편중현상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상위10%가 국가전체소득의 11%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상위 10%가 4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평의 문제를 한 마디로 말하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평한 인생의 기본세팅에 대해 한 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원죄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될 때에 주어지는 기본세팅을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수저론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출생한 나라에 따라서 가르기도 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다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데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직장 갖고 결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을 출발하는 기본세팅이 다르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모든 두드러진 사회적 문화적 경제 형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기본세팅으로 원죄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의 시작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느끼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원죄의 무게와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본문에서처럼 요아스와 같이 성전에서 자란 아이든, 창녀촌에서 창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란 아이든 인생의 기본세팅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차이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이 어마어마한 차이조차도 티끌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100kg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만 톤 급의 배와 비교한다면 100kg은 무게로 칠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톤 급의 배에 이 100kg은 차이라고 말할 여지가 없다는 것인데 그만큼 원죄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서울대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사람도 차이가 없는데, 다만 주어진 기본세팅인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에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원죄에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그 인생은 초등학교만 졸업했더라도,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높아지고 더 가지기 위해서 땀과 수고로 인생의 시간들을 채워나갈 때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이 사람은 원죄에 대한 대처방식이 올바르고 합당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절로 삶을 통하여 낙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의 특징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제거되지 않고 오직 그 영향력을 억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자꾸 핵 도발을 하므로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급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죄제재가 더 시급한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 중에서 1/10만 자기 속에

있는 원죄를 제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면 하나님께서 대북문제 정도는 저절로 해결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지, 이것조차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라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과제가 분명해집니다. 저도 흙수저로 태어났고 제 아들을 흙수저로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한 섭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벌들도 똑같이 원죄를 기본세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의 무게는 재벌의 재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만큼 무겁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겠다고 소원하거나 돈 못 벌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인데 원죄가 무엇일까요?

원죄는 마음의 공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인간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음의 공백은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성전의 성소에 떡상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들을 실제로 손에 쥐어서 배 부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은 잃고 흡입력만 남은 채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의 흡입력이 바로 원죄의 힘이고 성향입니다. 자꾸 세상 것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힘입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세상과 접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과 접하고 있는 한 이 힘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억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아스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기에게 가르쳐지고 마음에 주입될 틈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지의 의문에 대해서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당해내기가 어렵고 껄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마음껏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주장하거나 소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산당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자랐다는 그 장을 해석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곧 ‘날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

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로 태어난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실제 삶을 보면 성전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랐음에도 원죄가 기본세팅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요아스가 산당을 남겨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원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고 억제시키지 못한 결과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원죄의 영향력이 억제되지 못한 것일까요?
선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시킬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는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시킬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전 보수하는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와 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시키고 에덴에서처럼 저절로 살아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에 즉위한 후에 시간이 흘러 성전 보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세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금을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자랐던 곳이고 늘 보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시절에 성전 보수를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성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위한 뒤로 23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보수되지 않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찌된 일인지를 묻고 횡령이나 배임이 나올 법도 한데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고, 성전세를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감독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도록 성전세의 흐름을 정책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수리를 위해 세금을 내도록 공포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언뜻 보면 요아스의 공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려는 메시지의 강조점은 요아스가 자신 속에 있는 원죄의 영향력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원죄에 지배되어서 산당에서 제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기가 민망하므로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전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본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십일조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드리면 레위인들은 다시 십일조를 떼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식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

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제사장들이 직접 나가서 성전세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성전이 수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즉위식을 해서 백성들이 좋아했지만, 그 뒤로 백성들 누구도 성전을 생활화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일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내 소득의 1/10을 떼어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그것을 내가 좋게 느낄 때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걸고 싶을 때에 십일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즉위식 이후에는 백성들의 삶에서 생활화되지 못한 채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또한 즉위 23년째가 돼서야 성전이 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은 요아스 왕도 성전을 생활화하고 있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성전을 생활화했다면 따라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마음에서 자원할 때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장의 몫이 생겨서 성전도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늘 성전을 생활화했으면 성전 수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자기가 자란 환경적 문화적 차원과 국가의 정책으로만 생각을 하고 성전을 생활화하려는 마음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산당 제사를 좋아했습니다.
성전을 생활화했다면 말씀이 들어있는 지성소와 내 마음의 지성소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만을 내 만족과 기쁨의 이유로 삼았을 것이고, 지금 마음에 돈 자식 권력 건강 등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상태를 번제단에서 죽여야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세상을 접하는 동안은 원죄의 힘 자체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을 것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서울대에 가면 기쁠 수 있고, 권력을 쥐면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강력한 사탄의 설교에 설득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흡입하려고 하는 힘이 원죄의 영향력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살아지는 삶은 상실되고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살아계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과 가난뱅이의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원죄가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거지의 형편에서라도 성전 생활화를 통하여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해 저절로 살아지는 삶을 통해 에덴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삶이라도 원죄의 영향력 재배력 하에 있다면 돈이 산처럼 쌓였어도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하사엘이 북 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 왕국 유다까지 침공하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졌던 성물과 선왕들의 모아 두었던 모든 금과 왕궁의 모든 금을 모아 하사엘에게 바쳤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침공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닥치자 스스로 금을 모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들이 도망함으로,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갔을 때에는 물자만 가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두 아람의 침공을 비교해봅니다.
7장에서 엘리사는 자기 마음에서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시고 이 침공이 저절로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기본세팅인 원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기본설계와 구성이 갖는 의미를 생활화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생활화를 통해서 원죄의 영향력을 제어했더라면, 하사엘이 침공했을 때에도 그 문제들은 엘리사 때와 같이 저절로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원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게 모은 금과 여호와의 성전의 성물까지 다 바침으로서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요아스는 믿었던 심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결말입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성전의 의미를 활성화시킴으로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에 따른 말씀대로만 움직이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삶은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요아스는 힘들게 살아남았지만 이렇게 배반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죄의 영향력에 지배되어 이 세상 것들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그것들로 마음을 배불리기 위한 삶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십니까? 흙수저 출생입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북에서 난리를 치고, 일본은 독도를 가지려고 하고, 중국에서는 어선들이 떼로 몰려오고 난리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이 모든 상황의 기본세팅은 원죄입니다.
원죄의 영향력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면 우리의 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함으로서 무지막지한 아람의 침공이 저절로 해체되었던 것과 같은 일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와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따져보면 부족하다 못해 억울한 심정까지 들기도 하는 형편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단지 원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에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살아지는 삶을 통해 에덴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